

사자의 포효와 반딧불의 반짝거림 사이에서

한국 뮤지컬의 생태계를 묻는다 | 글 김승현 문화일보 기자



지난해 10월 말 서울에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두 공연이 맞붙었다. 바로 일본 시키(四季)씨어터컴퍼니의 뮤지컬 <라이언 킹>과 학전의 노래극 <개똥이 2006-날개만 있다면>(이후 <개똥이>). <라이언 킹>은 10월 22일 한국 최초의 뮤지컬 전용극장인 서울 잠실 샤롯데극장에서 일주일간의 프리뷰 공연을 시작으로 28일부터 정식 막을 열고 현재 오픈 런으로 달리고 있다. 반면 <개똥이>는 서울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24일 시작, 11월 19일 막을 내렸다.

흥행 성적표를 살펴보면 <라이언 킹>이나 <개똥이> 모두 이름 값에 비해 높은 점수를 거두진 못했다. <라이언 킹>의 경우 현재 세계 공연의 양대 중심지인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와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초연 이후 지금까지 흥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요즘도 해외에서는 예매하지 않으면 입석도 겨우 사는 것에 비해, S석 중심으로 표가 팔리고 있는 한국에서의 흥행은 초라해 보이기조차 한다. <개똥이>는 어떤가 원작을 아는 사람은 한숨만 쉬었다고 하고, 노래만 아는 젊은이들도 '노래 다쳤다'고 할 정도로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선부를 판단을 내리기는 이르다. 두 작품 다 아직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이언 킹>의 경우 잠재력은 고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뮤지컬계와의 갈등 때문이다. <개똥이>는 애초부터 마스터피스로 가기 위한 '마지막 프리뷰'를 선언했다. 무대만 만들었을 뿐 나머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험'을 했다. 이번에 쏟아진 많은 비판을 통해 오히려 '희망'을 봤다는 게 정확할 터다. 두 작품 모두 진짜 승부는 올해에 걸고 있다.

수입산과 토종의 대비,

그리고 공통분모

20세기에 만들어진 최고의 예술장르가 재즈라면, 뮤지컬은 이 재즈가 만들어낸 최대의 공연예술 형태다. 뉴올리언스산 재즈를 유럽에서 건너온 코믹 오페라와 연극에 결합, 코미디 뮤지컬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30년대 어름에 시작, 60년대 전후 절정을 이룬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다.

60년대 로큰롤 시대의 도래와 함께 힘을 잃어버린 뮤지컬을 쇠신한 것이 바로 80년대. 카메론 매킨토시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콤비를 이뤄 <캣츠>와 <오페라

의 유령>을, 미셸 웬베르와는 <레 미제라블>과 <미스 사이공>을 무대에 올리면서 웨스트엔드 뮤지컬의 혁신을 이뤘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들어 매킨토시의 스펙터클이 식상하다 싶어진 무렵, 1997년 혜성처럼 나타나 세계 뮤지컬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디즈니의 <라이언 킹>이었다.

그 <라이언 킹>과 뮤지컬 맹아기를 막 벗어나고 있는 한국 뮤지컬, 그 가운데도 미완성인 소극장 뮤지컬 <개똥이>를 비교하는 것은 솔직히 무리가 있다. 하지만 <개똥이>가 갖는 함의는 결코 <라이언 킹>에 못지 않다. 음악적 측면에서 결코 <라이언 킹>에 떨어지지 않고, 의미와 철학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라이언 킹>을 넘어선

다고 할 수 있다. 두 작품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면 한국 뮤지컬의 내일을 여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키의 〈라이언 킹〉과 학전의 〈개똥이〉의 공통점을 찾자면, 아사리 게이타(淺利慶太)와 김민기의 ‘단호한 의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양국 공연계의 살아있는 신화인 두 사람은 생전에 기필코 풀어야 할 숙제로 작품에 임하고 있다.

1964년 극단 시키를 만들어 세계적인 명작을 소개하며 일본 공연계의 신화를 창조해낸 아사리는 현재 매출 2,800억 원대의 세계적인 프로덕션 그룹을 일궈냈다. 지난해 요코하마에 개관한 시키 연습실은 세계 최대, 최고 수준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나가소네 아스히로 전 일본 총리는 시키의 베이스 캠프 완성을 축하했다. 이날 시키의 일본인 단원을 비롯해 한국인, 중국인 3국 단원들이 만들어낸 〈코러스 라인〉의 테마송 〈나는 이 길을 가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한중일 아시아가 하나가 돼 동양적 뮤지컬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감동적이었던 한편, 아직 잊혀지지 않는 ‘대동아 공영권’의 유령이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이는 문화와 예술에 의한 ‘동양평화 추구’라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지만, 힘에 의한 ‘대동아 공영권’ 쪽으로 생각이 먼저 미치는 것은 일제 식민통치의 역사적 경험에 남긴 피해의식 또는 콤플렉스의 발로일 것이다.

그는 한국인 단원 60여 명에게 ‘한국어 작품’을 만들어 주기 위해 ‘아직 한국에는 뮤지컬 시장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저작권자 디즈니를 설득, 〈라이언 킹〉한국어 버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은 1,500억 여 원을 들여 한국 공연사상 처음

으로 세계적 수준의 뮤지컬 전용극장 ‘사롯데 극장’을 지었다.

20여 년 전 신회장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 뮤지컬 극장을 짓고 아사리에게 맡기려 했지만, 아직 일본 시장에 더 공을 들여야 하고 단원 중에 한국배우도 없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완곡하게 거절, 자문만 했다. 롯데월드 출신의 뮤지컬 스타로는 남경주, 최정원 등이 있으며, 이번 ‘사롯데 극장’은 아사리가 맡는다는 전제 하에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는 〈아침이슬〉 등의 노래로 일약 70,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됐다. 이후 그에게는 ‘시대의 양심’·‘저항가수’·‘투사’ 등의 수식어가 붙었다. 그 자신이 아무리 거부해도 소용없다. 미술학도에서 연극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는 가수 겸 작곡가로 예술의 방향을 바꾼 뒤, 노동자로, 농민으로 살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품은 세상을, 서정적인 노래로 솔직하게 읊진 결과다.

그는 80년대 말 화제로 시골집을 몽땅 잃고 대학로로 나왔다. 연극하는 친구가 아동극 뮤지컬을 만들자고 해서다. 90년대 이를 본격화하려는 ‘못자리’를 만들었다. 극단 학전과 학전블루, 학전그린 두 개의 소극장이자. 이제 그는 학전에서 키운 ‘모’를 한국은 물론 세계에 ‘모내기’하려는 ‘뮤지컬 농사꾼’이다. 3,000회를 넘기고 아직도 계속 달리고 있는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그의 대표적인 품종이고, 〈개똥이〉·〈의형제〉·〈모스키토〉 등은 아직 실험 중인 품종들이다.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지만, 더 아픈 손가락 아니 가장 아파하는 ‘모’가 있다. 〈개똥이〉다. 1995년 초연, 1997년 앙코르 공연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2000년 새 천년 작품으로 대대적으로 보수하려다가 불발에 그쳤다. 이

작품의 주제가인 ‘날개가 있다면’을 작곡한 1984년부터 따지면 무려 22년째 작업 중인 셈이다. 그는 이 작품에 집착하는 이유를 ‘업(業)’이라고 대답한다. “정리 안하고 죽을 수 없다. 이것을 해야 새 작업을 할 수 있다. 지우는 게 정말 힘들다. 찢값이다. 끄적끄적했던 것을 내 손으로 다 잘라내야 한다.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쉬울 것 같다”며 그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 두 거장의 결연한 의지가 작품의 멈출 수 없는 엔진이라는 점과 함께, 어른과 아이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또 주제 면에서 물질 중심의 서구문명이 아니라 생명의 순환, 윤회 등 동양적인 정신 세계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와 함께 동양적 음악과 표현양식을 대거 사용, 서구 뮤지컬을 혁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맥을 같이 한다.

희망적인 실패가 열어준

가능성

“저 산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난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일까

왜 저 시냇물은 저리로 흘러만 갈까

왜 이 세상은 넓기만 할까

날아가고 싶어, 날아가고 싶어

시냇물을 건너 푸른 들판 지나

날개만 있다면 가보고 싶어

높다란 바위 저 산 너머로...”

〈개똥이〉의 주제가 〈날개만 있다면〉이다. 이 작품은 뮤지컬보다 노래로 먼저 유명해졌으며, 작사·작곡·연출 모두 김민기가 맡았다. 1984년 농사를 시작할 때 “똥을 밟 주무르듯이 주물러야 농사꾼이 될 수 있다”는 한 농부의 말에 깨우침을 얻어 구상한 이 작품은, ‘똥’과 ‘밥’, 그 생명의 순환고리를 동화적으로 연결하려 했다. 그것이 그의 가슴 속, 머리 속에서 20년 이상 숙성돼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개똥이〉는 이같은 생명의 순환과, 물질의 순환이 이뤄지는 고리에 전래 영웅설화를 대입했다. 배경은 시냇가 곤충마을이다. 곤충 마을에 쓰레기가 쌓이면서 생명의 순환고리가 끊긴다. 쓰레기가 쌓이고 농약과 화학비료로 물이 오염돼 곤충들이 죽어간다. 그런데 이런 오염된 환경이 바퀴벌레들에게는 오히려 살기 좋은 땅이다. 반디 등 다른 곤충들이 모두 죽고 바퀴만이 왕국한다. 바퀴에 오염된 세계는 반디의 빛에 의해 구해질 수 있다. 바퀴들은 이 사실을 알고 반디를 모두 죽인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반디의 후손을 지키기 위해 쇠똥구리, 송장치기 등이 갖은 노력을 다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똥’을 약으로 보는 것이다. 쇠똥구리가 곤충마을의 의사인데, 곤충마을의 똥을 퍼다가 부지런히 황폐한 땅으로 옮기고 똥을 변화시켜 약으로 쓴다. 민간의학에서는 ‘뒷간’에서 ‘깨끗한 똥물(?)’을 구해 약으로 쓰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장독(杖毒)에는 특효약이라고 한다. 쇠똥구리 할아버지는 농약에 오염된 반디의 온 몸에 똥을 발라 치료한다. 그리고 이 똥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반디의 몸에서 나오는 약한 빛을 감춰, 바퀴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반디를 찾아내려는 바퀴벌레들의 추적은

집요하다. 화려한 날개옷으로 유혹해 마침내 반디를 찾아 가두고, 곤충마을의 벌레들을 모두 죽인다. 날개옷에 묶여 움쭉달짝 못하는 반디는 하늘을 우러러 한탄한다. 이 소리를 먹구름이 듣는다.

먹구름은 눈이 멀었다. 시냇물에서 강물로, 강물에서 바다로, 바닷물이 구름으로, 구름이 다시 시냇물로 변하는 그 순환고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먹구름은 반디에게 “네 눈을 주면 비를 내려주겠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반디는 과감하게 자신의 눈을 희생, 빛과 물을 얻어 세상을 구해낸다. 이처럼 줄거리를 살펴보면 단순한 구조지만 등장 캐릭터의 상징이 무한 증식할 수 있어, 보는 이의 경험에 따라 정치적·사회적·문학적·예술적 해석 가능성을 얼마든지 열어놓고 있다.

이번 공연은 초연과 재연 당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극장에 올려 관객을 맞았던 것을 가장 큰 실패 요인으로 분석, 소극장 무대에서 한 달 동안 무대 준비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아울러 전작과 다른 점 역시 살펴봐야 할 것인데, 가장 큰 특징은 대극장에서 소극장으로, 대사 없는 오페라 형식에서 대사가 들어간 뮤지컬 형식으로 바뀐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작품의 밀도가 한층 높아지고 의미의 전달이 한층 강해졌다. 게다가 등장인물에 따라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영상을 활용, 기존의 드라마 뮤지컬과는 전혀 다른 과학적 뮤지컬을 시도했다. 또 창극의 주역을 두루 섭렵한 소리꾼 김소연이 가세, 음악의 결을 한층 풍요롭게 했다. 또 ‘방구대장 뽕뽕이’에서 ‘짜잔형’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권형준을 비롯해 임은영·박은영·이승원·이학민 등 학전 출신 실력과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다. 초연과 재연에서 ‘노래는 좋지만 열개가

쭈మ్…’이라는 평을 받으며 흥행에서 쓴맛을 봤는데, 이번 ‘삼세번’의 공연에서 관객들은 그 이상 실망한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전개로 보인다. 극의 구조에 스토리를 녹여 노래에 실어 전달하기 보다는, 스토리에 맞춰 극의 구조를 짜고 거기에 노래를 붙였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어색하고 무겁다. 박수를 치고 싶어도 박수를 칠 타이밍을 찾기 힘들다. 다시 말해 어디가 하이라이트인지, 어느 장면에서 박수를 쳐야 할지 관객들이 극에 참여할 여지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따라 극의 핵심적 상징인 ‘물’과 ‘똥’의 의미마저 희화화되고 말았다는 생각이다.

인물에 대한 역할 설정도 문제다. 특히 극의 핵심인 똥구리 할아버지가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죽어버린다. 또 송장치기도 처음 등장에서는 좋은 소리와 서사적 느낌이었으나, 끝까지 같은 패턴의 연기와 노래가 반복되면서 극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는 느낌마저 준다. 인물 표현 역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디즈니적 표현과는 다른 사실주의적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로테스크하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 물론 디즈니와 달라야겠지만 이렇게 달라서는 경쟁력이 없다. 이를 두고 “인간의 다리를 흉내내 바퀴를 만들었다”는 아폴리네르의 ‘초현실주의 선언’은 충분히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또 영상과 조명 등도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프리뷰 성격으로 새로운 장비를 투입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겠지만 당초 계산했던 영상의 인터랙티브 효과는 조명이 엇갈리면서 의도한 효과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극의 갈등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되고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연못과 먹구름의 표현이 제대로 객석에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스개가 되고 말았다.



극단 학전의 <개똥이>는 ‘생명의 순환’을 이야기한다. 스토리 자체는 단순하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의미와 상징이 무한증식하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
시키의 <라이언 킹>은 동양적 판타지로 가득하다. 일본의 전통인형극 분라쿠, 전통극 가부키, 인도네시아의 그림 자극 등의 동양적 기법을 차용해, 런던 웨스트엔드나 뉴욕 브로드웨이의 뮤지컬과 전혀 다른 독특한 스펙터클을 보여준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우선 단단해진 무대다. 소극장은 물론 대극장으로 옮겨도 부족함이 없는 기능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물론 전작에 비해 많이 깎여진 무대가 쉽지는 않겠지만 문제점은 작사·작곡·연출을 맡은 김민기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극의 전개와 표현 방법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인 극의 서사와 음악이 나무랄 데가 없어 '지하철 1호선'과 같은 새로운 고정레퍼토리의 탄생이 결코 무리해 보이지 않는다.

초반의 부진,

중원을 평정할 것인가?

<라이언 킹>의 연출을 맡은 줄리 테이머는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 인형극과 그림자극을 배운 바 있으며, 이 작품에서도 그 영향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일본의 전통인형극인 분라쿠(文樂)와 전통극 가부키(歌舞伎), 인도네시아의 그림자극 등 동양적 공연기법을 활용해, 동양적 판타지가 가득한 독특한 감동과 새로운 스펙터클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카메론 매킨토시로 상징되는 런던 웨스트엔드식의 중후장대한 스펙터클에서 벗어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쇄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키의 <라이언 킹>은 서양이 만든 동양적 기법의 뮤지컬을, 이 기법의 고향에서 다시 만들어 작품의 완성도가 오히려 원작을 넘어서고 있다는 평도 듣는다.

<라이언 킹>은 첫 장면에서부터 이 작품이 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알게 해준다. 원숭이 주술사 라피키가 아프리카 대륙 특유의 생명력 가득한 원시

적 목소리로 주제가 '서클 오브 라이프(Circle of life)'를 부르는 동안 황금빛 해가 서서히 떠오른다. 이어 코끼리·기린·표범·영양·얼룩말 등 온갖 동물들이 객석에서 무대에 오르는 장관이 연출된다. 또 무대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바위 언덕 '프라이드 록'도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스펙터클이다. 이와 함께 주인공 사자와 하이에나 삼총사 등의 독특한 표현을 비롯해 코끼리 무덤, 질주하는 소 떼 등 무릎을 치게 하는 표현은 역시 명불허전이다.

무대에서 인간의 목소리로 듣는 엘튼 존의 음악의 감동 역시 이제는 비디오를 통해 볼 수 밖에 없는 애니메이션 원작과 차원이 달랐다. 원작과 달리 라이브 연주 대신 녹음을 사용하고, 녹음에 맞춰 노래하고 타악 연주를 맞춘 것은 공연예술 특유의 생동감을 떨어뜨려 아쉬움이 남지만 말이다. 아울러 한국 뮤지컬계의 반발로 만족할 만한 오디션을 하지 못해서인지 배우들의 역량에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공연제작자·기획자·연출자 등 전문가 그룹들은 "비싸게 만든 아동극"이라며 "한국 공연 상황에서 6개월을 넘기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무대도 좁은 것 같고, 배우들의 수준도 차이가 있는 데다가 반주가 라이브 연주가 아닌 녹음이라 공연 특유의 생동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그러나 시키 측은 "아사리 게이트 대표의 의지에 따라 브로드웨이 원작 무대를 그대로 재연했고, 뉴욕공연에서는 배우를 보호하기 위해 하이에나 장면에서 허리를 못 쓰게 하는데, 우리는 허리를 쓰는 등 오히려 생동감이 넘치게 안무했다"고 반박했다. 무대나 작품내용

이 원작 그대로고, 오히려 부분적으로 더 수준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녹음반주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음악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연주 이상의 돈을 들여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안정적 음악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녹음반주를 사용한다”는 말, ‘안정된 음악 수준’에서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지만 ‘안정된 공연’에 대해서는 수궁이 가는 부분도 있다. 일단 이번 공연에 대한 한국 뮤지컬계의 반발이 극심했고, 그에 따라 배우 오디션도 충분히 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의 뮤지션들을 고용해서 라이브로 공연을 끌고 갔을 때 만약의 경우 공연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엄청난 제작비를 쏟아 부은 시키측이 라이브 연주비용을 절약하려 녹음음악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도 가능하다.

한편 작품을 ‘본’ 일반 관객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다. 시연회 초기에 성인관객들은 일부 불안정한 부분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지만, 뒤로 갈수록 배우들과 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젊은 관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공연팀에 따라 수준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 일반 관객의 눈에는 현란한 무대와 즐거운 연출이 눈에 더 띄었다. 이에 따라 시연회 전, 한 예매사이트에서 10% 내외였던 예매율이 시연회 후 40%로 뛰어올랐고, 12월에는 매진 사태를 빚었다. 다소 수세적 입장이었던 초반의 위기를 벗어 연말이 되면서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 2월 들어 S석은 거의 매진됐으나, A석은 많이 비어 있어 시키측은 다양한 마케팅을 강구 중이다.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전문가 그룹의 예측이 맞을지, 관객들의 환호가 계속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날개가 있다면

비상할 수 있다

세계 뮤지컬은 40, 50년대 브로드웨이 뮤지컬 전성시대에 이어 80, 90년대를 지배한 웨스트엔드 뮤지컬 이후 현재 뚜렷한 맹주 없이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여기서 형식과 내용 면에서 단연 앞서 있는 작품이 〈라이언 킹〉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대단한 ‘사자왕’도 한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적 문화의 독창성 때문이다. 우선 일본이 제작했다는 점, 또 뮤지컬 전용극장 1호를 독점하는 것과 관련한 한국 뮤지컬계의 거센 반발로 고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라이언 킹〉보러 가자’고 하면 일반관객들은 ‘웬 이동극?’ 하면서 쓰악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레 미제라블〉·〈캣츠〉·〈오페라의 유령〉·〈미스 사이공〉은 물론, 해외에서 〈라이언 킹〉보다 인기가 떨어지는 〈맘마미아!〉나 〈노트르담 드 파리〉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다. 아직 한국의 뮤지컬 시장이 세계적 흐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점이 없지는 않지만 문화 풍토가 미국적인 가족주의보다는 성인적 감성의 사랑과 스펙터클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뮤지컬은 대세고, 한국 뮤지컬 시장이 세계시장과 독립적으로 갈 수는 없으므로 결국은 수렴될 것이다. 또 가장 중요한 흥행요소는 ‘관객의 입소문’인 만큼 〈라이언 킹〉은 이번 ‘춘궁기 보릿고개’만 잘 넘기면 분명 2000년 〈오페라의 유령〉이상으로 한국 공연예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라이언 킹〉의 불공정한(?) 독주로 국내 뮤지컬계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 살자고 남더러 죽으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어차피 세계화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해 2호, 3호의 뮤지컬 전용극장이 들어서야 한다. 뮤지컬의 경우 비단 예술지원 차원이 아니라 산업투자의 차원에서 바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세계적으로는 〈라이언 킹〉이 대세지만, 홈그라운드에서는 다르다. 한국에서는 줄리 테이머나 엘튼 존보다 김민기가 훨씬 유명하고 존경받는다. 〈개똥이〉가 새로운 옷을 입고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활용한다면 승부는 알 수 없다. ‘한 골목에 있는 세 개의 구둣방 우스개’는 좋은 예일 것이다. 한 가게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구둣방’이라는 간판을 붙이자, 그곳으로 손님이 몰렸다. 그러자 다른 가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구둣방’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손님들은 그 가게로 발길을 돌렸다. 마지막 가게는 ‘세계’를 넘어서는 ‘우주’를 선택하는 확장 대신 축소, ‘이 골목에서 제일 좋은 구둣방’이라는 이름을 붙여 골목길 손님을 독차지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로만 예술에 있어서도 역시 독불장군은 없다. 캐나다의 태양 서커스(Cirque de Soleil)가 1993년에 올린 〈미스테르〉를 보면 〈라이언 킹〉이 이 작품에 많은 빛을 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개똥이〉도 창조적 모방을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인간 세계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줄 수 밖에 없다.

김민기는 테마곡 〈날개만 있다면〉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에서 다섯 마디를 따왔다고 고백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음악이 나와 찾아보니 모차르트였다”며 “모차르트는 4분의 3박자였는

데 〈개똥이〉에는 4분의 4박자가 된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모차르트는 젊어서 죽었다. 젊어서 그런지 그의 음악은 재기발랄하다. 호흡이 길지 않다. 테마 전개가 급세 끊긴다. 모차르트의 앞뒤 외연을 풍부하게 해줬다고 위안을 삼고 있다”고 특유의 씩스러운 웃음과 함께 말했다.

보편적 성격의 소설이나 무대 디자인에서 얼마든지 단서를 차용, 그것을 창조적으로 변용할 수 있다. 게다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철학적으로, 합법적으로 모방이 가능한 ‘패러디’라는 멋진 양식도 개발해놓았다. 독창적이긴 하지만 보편성을 획득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의상과 분장 등의 과감한 성형수술이 요구된다. 가르치려는 태도 역시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개똥이〉는 의미 있는 철학을 구체적인 말로 풀어내 관객들을 ‘가르친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의미 있는 대사가 강의 형태가 아닌 노래와 춤, 미장센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형태에 대한 부분적 정형외과 수술도 요구된다.

〈개똥이〉는 오랜 난산 끝에 태어나 어렵게 유치원, 초등학교를 거쳐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교에 입학, 대입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극 초반에서 처럼 어려움을 겪지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여러 친지들로부터 정성이 가득한 양육과 격려를 받고 있는 만큼, 곧 황금날개를 활짝 펴고 ‘시냇물을 건너 푸른 들판 지나, 높다란 바위 저 산 너머로...’ 비상해, 막힌 생명의 고리를 풀어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쓴이 | 김승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와 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프랑스 파리 III 소르본 누벨 대학에서 ‘국제문화정책과 예술행정’에 관한 고급전문학위’를 받았다. 현재 〈문화일보〉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이야기가 있는 미술관〉·〈축제 만들기〉가 있다.